

호주, 군용 위성통신 사업 SPA 입찰 착수

'26.09.17(목), 멜버른무역관

□ 개요

- 호주 국방부는 기존 JP9102 군용 위성통신 사업을 재설계한 SP9102 (Space 9102)의 첫 번째 조달 단계로, 협대역 UHF 위성통신(narrowband UHF SATCOM) 능력 확보를 위한 입찰요청서(RFT)를 발행함. 이번 RFT는 2025년 산업계 대상 정보요청(RFI) 이후 약 15개월 만에 추진된 것으로, 호주의 주권적 위성통신 역량 확보 사업이 구체적인 조달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□ 상세내용

- 기존 JP9102에서 SPA9102로 사업 재편
 - 기존 JP9102는 호주가 직접 운영하는 정지궤도 군용 통신위성 3~5기와 지상국 및 위성통신 운영센터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됐으나, 2024년 11월 단일 궤도 기반 위성통신 체계가 변화하는 우주 위협과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됨
 - 이후 재설계된 SPA9102는 단계적으로 위성통신 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, 이번 1단계에서는 정지궤도에 협대역 UHF 통신 위성 1기를 확보할 예정. 향후 광대역 SATCOM 능력 확보를 위한 후속 사업도 추진될 예정
- 협대역 UHF 위성통신 역량 확보
 - 이번 RFT의 주요 내용은 호주가 운용할 UHF 위성통신위성과 발사, 초기 운용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며, 기존 호주군의 UHF 통신장비 및 지상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. 2025년 RFI에서는 호주 전역의 지상 네트워크 및 배치된 사용자 무전기에 대한 통신 지원과 전자기 간섭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됨
 - 호주 국방부는 현재 미국의 WGS(Wideband Global SATCOM) 위성망과 상업위성의 통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, 기존 Optus C1 위성에도 제한적인 협대역 UHF 통신 능력을 운용하고 있음

-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존 의존도를 보완하고 호주의 독자적인 위성 통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
- 실제 조달 절차 착수 및 향후 일정
 - 이번 RFT에 대한 업체 제안서는 2026년 12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, 국방부는 2027년 2분기 중 우선협상 또는 최종 선정 업체를 결정하는 일정을 제시
 - 업계에서는 Lockheed Martin, Northrop Grumman, Boeing, Airbus, Optus 등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
 - 국방부는 SPA9102 전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다중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을 제시

□ 무역관 의견

- 이번 RFT 발행은 호주가 SPA9102를 통해 위성통신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
- 특히 이번 사업은 우선 협대역 UHF 위성통신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한 후, 향후 광대역 및 다중궤도 위성통신 능력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, 호주의 위성통신 역량 구축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
-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위성체뿐 아니라 통신 탑재체, 지상국 및 지상통제체계, 통신장비, 관련 소프트웨어 등 위성통신 분야 전반에서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,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호주 국방부의 후속 사업 및 공급망 참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* 2026년 9월 16일, PSNEWS(<https://psnews.com.au/defence-releases-tender-for-revived-satellite-communications-project/185479/>)